

# 고대중국어 어순 연구 현황

曹銀晶\*

---

## ◁ 목 차 ▷

---

- I. 들어가며
  - II. 이론 및 명칭에 대한 토론
    - 1. 도상성과 자의성
    - 2. '語序'인가 '詞序'인가
  - III. 기본어순 유형에 대한 토론
    - 1. 목적어 전치 현상
    - 2. 고대중국어는 SVO인가 SOV인가
  - IV. 수식어 어순에 대한 토론
    - 1. 수식어 후치 현상
    - 2. 수식어 전치 현상
  - V. 부사어/보어 어순에 대한 토론
    - 1. 전치사구 어순
    - 2. 동보구조의 형성과 변천
  - VI. 나오며
- 

## I. 들어가며

현재 학계에서는 중국어 기본어순이 SVO형인지 SOV형인지에 대한 토론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어법학계에서의 중국어 어순 유형에 대한 입장은 크게 아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중국어 어순이 SVO에서 SOV로(혹은 SOV에서 SVO로, 다시 SOV로) 변천되고 있다는 주장이며 다른 하나는 중국어의 어떤 구조는

---

\* 세종대학교 국제학부 중국통상학 전공 초빙교수.

본고는 필자가 박사과정 재학 당시인 2008년 가을, 北京大學 楊榮祥 교수의 「漢語語法史研究專題」 수업 수강 시 제출했던 보고서를 바탕으로 수정·보충·확장되어 작성되었으며 일부 참고문헌은 楊榮祥 선생님이 제공하셨음을 밝힙니다.

SOV에 가깝지만 중국어는 여전히 SVO에 속한다는 견해이다. SVO에서 SOV로 변천되고 있다는 견해는 현대중국어 구문의 어순이 SVO와 SOV 모두 존재하고 있는 등 일률적이지 못하다는 점 때문에 생겨났으며, SVO의 전신이 SOV였을 것이라는 견해는 상고중국어 시기 목적어의 전치 현상과 깊은 연관이 있다. 이처럼 고대중국어 어순 연구가 중국어 기본어순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고대중국어 어순 연구 현황을 개괄해 놓은 연구는 극히 드물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고에서는 이에 중국어 어순 관련 기존 연구 성과를 고대중국어에 제한하여 요약 정리해 보고자 한다.<sup>1)</sup>

## II. 이론 및 명칭에 대한 토론

중국어 어순 관련한 이론으로 戴浩一(1985)가 시간순서원칙이라는 이론을 제시한 이래 謝信一(1991)는 도상성 원칙과 자의성 원칙을 주장하였으며 일부 중국 학자들은 상기 이론이 고대중국어에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검증을 시도했다. 또한 ‘어순’이라는 명칭 역시 ‘詞序’ 혹은 ‘語序’라 쓰이고 있는 등 학자마다 각기 다른 명칭을 사용하고 있었다.

### 1. 도상성(臨摹) 과 자의성(抽象)

戴浩一(1985)는 인지를 기반으로 하는 기능어법(功能語法)을 가지고 인류의 시공간에 대한 인지능력에 일반적인 교류원칙을 접목시켜 중국어의 구조원칙에 대한 해석을 시도하였다.<sup>2)</sup> 그는 시간순서원칙(PTS, The principle of temporal sequence)을 주장하였는데 이는 각기 다른 두 개의 구법단위의 어순은 그들이 묘사하는 시간이나 상태가 시간의 선후 순서에 따라 결정된다는 이론이다. 그는 중국

1) 본고에서는 고대중국어의 시기를 상고중국어 시기, 중고중국어 시기, 근대중국어 시기, 현대중국어 시기로 세분해야 한다고 본다. 기존 견해에 따라 상고중국어 시기의 下限은 西漢으로, 근대중국어 시기의 上限은 晚唐五代로 구분하겠다.

2) 袁毓林(1994)《關於認知語言學的理論思考》,《中國社會科學》第1期 참조.

어에서 두 개의 술어가 연속 출현하는 병렬문(並列句), 병렬술어(並列謂語), 연동문(連動式), 사역구조(使成式) 등에 대해 분석을 시도하여 해당 이론을 증명하였으며 부사어의 위치 역시 이 이론으로 풀이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sup>3)</sup> 그 후 謝信一(1991)은 감지적(感知)이거나 개념적(概念)인 것을 근거로 한 것을 도상성 원칙(臨摹原則, iconic principles), 논리적이고 수학(數學)적인 것을 기반으로 한 것을 자의성 원칙(抽象原則, abstract principles)이라 칭하며 언어부호는 도상성과 자의성이라는 원칙을 바탕으로 조합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자의성을 주요 원칙으로 삼는 언어는 도상성은 부차적인 수단이 되고 도상성을 주요 원칙으로 삼는 언어는 자의성을 부차적인 수단으로 삼는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戴浩一의 시간순서원칙은 도상성 원칙에 해당한다. 상기 두 학자의 논문이 발표된 이후 이러한 이론을 중국어에 접목시킨 연구가 일부 진행되었는데 가령 張田田(2008)의 경우 현대중국어에서 ‘摔-破’, ‘聽-清楚’, ‘看-見’, ‘學-會’, ‘累得走不動’, ‘感動得流眼淚’ 등 다수의 동보구조가 戴浩一이 주장한 시간순서원칙을 따르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기존 연구 성과는 보통 현대중국어에 국한되어 있다. 비록 기존연구에서 중국어사의 용례를 부분적으로 제시한 경우가 없지는 않았지만 중국어사의 각도에서 통시적이고 체계적으로 고찰한 연구는 상당히 드물다. 戴浩一 역시 자신이 주장한 이론은 고대중국어에 적합하지 않은 모델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蔣紹愚(1999)는 처소명사 앞에 출현하는 介詞 ‘于’의 유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상고중국어 시기에는 ‘于’에 한해 도상성이 아닌 자의성 원칙을 따른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어는 도상성 원칙을 준수하는 언어이기는 하나 시기별로 자의성을 보조수단으로 삼기도 하는데 이러한 특징은 인간의 感知 방식에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언어 내부적인 변화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그는 처소명사의 경우 《左傳》에서는 ‘于+처소명사’의 형태로 동사 뒤에 놓여 자의성 원칙을 따르다가 《史記》에 이르면 방위사의 출현으로 처소명사는 동사 앞뒤에 자유롭게 놓이게 되어 도상성 원칙을 따르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그 후 이러한 견해를 확장하여 상고중국어 시기의 처소를 나타내는 전치사 외에도 대상, 공구 등을 나타내는 전치사구 어순을 심도 있게 고찰한 논문이 발표되었는데 潘秋平·江凌(2013)이

3) 戴浩一 著, 黃河 譯(1988) 《時間順序和漢語的語序》, 《國外語言學》第1期.

그러하다. 그들은 상고중국어 시기에 전치사구가 술어의 뒤에 놓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는 SVO 언어의 특징이며 상고중국어 후기에 접어들면 전치사구가 동사에 선행하는 구조가 점점 우세를 점하게 되는데 이는 도상성 원칙의 시간순서원칙이 반영된 결과라 주장하였다. 이 밖에도 출토문헌에서의 연구 성과 역시 존재하는데 劉靑(2007)은 戴浩一의 시간순서원칙이 갑골문 어순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해 고찰하였다. 그 결과 동사의 경우 연동문(連動句)이나 겸어문(兼語句)에 쓰일 경우 시간순서원칙을 지키고 있었으며, 祭祀 관련 일부 명사나 전치사 구조의 경우 도상성 원칙보다는 구법 규율이 작용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는 이를 통해 “어법 구조라는 것은 도상성 원칙과 구법 규율이 동시에 작용하는 결과”라고 주장하였다. 즉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고대중국어의 경우 도상성과 자의성이 동시에 작용하는 언어라는 연구 결과가 주를 이루었는데 그 고찰 대상이 전치사구나 갑골문에 제한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 2. ‘語序’인가 ‘詞序’인가

어순 연구를 개괄함에 있어 ‘어순’ 관련한 명칭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다. 왜냐하면 ‘어순’ 명칭이 아직까지 중국어로 통일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가령 일부 학자는 ‘詞序’라는 단어를, 일부 학자는 ‘語序’라는 단어를, 일부 학자는 심지어 ‘단어의 순서(詞語的次序)’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어순’의 함의에 대한 의견 역시 분분한 편인데 단어(詞)의 배열 순서로 보는 의견, 어법단위의 배열 순서라고 보는 견해, 어법구조에서 구법성분의 배열 순서라고 보는 견해 등 다양한 의견이 상존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沈培(1992)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語序’를 ‘詞序’라 일컫는다. ‘詞序’는 word-order를 번역한 단어인데 인도유럽어(印歐語)에서는 형용사는 관형어와, 부사는 부사어와 대응되는 등 품사와 구법이 일대일 대응관계를 지니기에 ‘詞序’를 ‘語序’로 봐도 무방하다. 그러나 품사가 결합하는 순서는 어법성분 순서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때문에 1960년대에 일부 인도유럽어(印歐語) 언어학자는 어순을 토론할 때 ‘詞’가 아닌 ‘의미를 지닌 성분’을 하나의 단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일부 학자는 이 때문에 어순을 ‘詞’의 순서가 아닌 ‘성분’의 순서라 하자고 주장하기도 했

다. 중국어의 경우 품사와 구법성분이 일대일 대응을 하지는 않는 경우도 많기에 '詞序'와 '語序'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范曉(2001) 역시 '語序'와 '詞序'의 차이점에 대해 상세히 논하고 있으며 '語序'는 '詞序'와는 다른 것이므로 엄격히 구별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詞序'는 詞나 어법단위의 배열 순서이고 '語序'는 구조성분의 배열 순서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語序'를 연구하는 목적은 어법구조의 내부 성분들의 배열 규칙을 설명해서 정태 구문의 기본 유형과 동태구문의 '語序'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이므로 구법어순, 의미어순, 화용어순을 구분해서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정태어순과 동태어순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도치 이동(倒裝移位)과 비도치 이동(非倒裝移位)을 구별해야 하고 개별적 특징(個例)과 유형론적 특징(類型) 역시 구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종합하면 어순은 중국어로 '語序' 혹은 '詞序' 등으로 쓰이고 있으며 그 함의 역시 완전히 같지는 않다. 그러나 '詞序'와 '語序'는 장기간 혼용되어 왔고 연구자들은 보통 두 명칭을 동일한 것으로 여기고 연구를 진행하기에 본고에서는 편의상 '詞序'와 '語序' 모두를 '어순'이라 번역하였다.

### Ⅲ. 기본어순 유형에 대한 토론

아래에서는 상고중국어 시기의 목적어 전치 현상에 대한 기존 연구를 개괄하고 이와 관련한 고대중국어의 기본어순 유형 관련 논의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논해보도록 하겠다.

#### 1. 목적어 전치 현상

상고중국어 시기 부정문의 경우 목적어가 代詞<sup>4)</sup>라면 보통 전치되며<sup>5)</sup> 의문문의

4) 본고에서 '代詞'라는 명칭을 '대명사'로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중국어를 답습해서 쓴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필자는 현재 「상고중국어 시기 近指代詞 용법과 그 변천 연구」라는 주제로 한국연구재단 학문후속세대 박사후국내연수 지원 사업을 수행 중에 있는데, 近指代詞 용법을 1차 고찰한 결과 代詞는 NP뿐만 아니라 VP 역시 재지시하고 있었기에

경우 목적어가 疑問代詞라면 보통 동사나 전치사 앞에 위치하게 된다. 필자의 고찰에 따르면 서주 춘추시기에 '是'가 목적어로 쓰일 경우 대부분 동사나 전치사 앞으로 전치되는데 '子孫是保', '是以先行' 등의 용법이 그러하다.<sup>6)</sup> 상기 언급한 목적어 전치 구조(부정문에서의 代詞 목적어, 疑問代詞가 목적어로 쓰이는 경우, 목적어가 複指代詞일 경우) 관련하여 孫良明(1989)의 경우 《詩經》에서의 목적어 전치 구조를 고찰한 후 이러한 구조가 《詩經》의 毛傳과 鄭箋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비교 대조하였다. 그 결과 이러한 구문은 상고중국어의 구어 현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며 대략 서주 시기와 춘추 시기에 걸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sup>7)</sup> 또한 목적어 전치 구조의 중고중국어 시기 이후의 변천에 관한 연구도 있는데 魏培泉(2004)과 이현진(2014)의 연구가 그러하다. 魏培泉(2004:217)에서는 부정문과 의문문에서 代詞가 목적어로 쓰일 경우 후치되는 시기가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는 부정문에서의 代詞 목적어 후치 현상은 선진시기에도 일부 존재했을 뿐만 아니라 東漢 이후에는 더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의문문에서의 代詞 목적어 후치 현상은 선진 시기에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東漢에 이르러서도 극소수일 뿐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이러한 현상이 중국어의 기본어순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았지만 이러한 구문에서의 어순 변화가 확실히 존재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변화의 원인 등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고 언급하

그 용어를 '대명사'로 번역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다. 또한 선행사가 출현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기에 이를 '지시사'나 '대체사'라고 단순 번역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현재 본 과제는 아직 진행 중으로 좀 더 체계적인 고찰과 연구가 이뤄지면 '代詞'라는 명칭을 한국어로 어떻게 번역해야 할지 좀 더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5) 물론 일부 代詞는 동사 뒤로 후치된다.

6) 楊伯峻·何樂士(2001)에 따르면 이러한 구문은 '목적어-구조조사-동사'의 어순으로 사용되며 이 때 사용되는 구조조사로는 '之'와 '是' 등이 있는데 일부 학자들은 이러한 구조조사를 複指代詞라고 칭하기도 한다. 楊伯峻·何樂士(2001) 《古漢語語法及其發展》, 語文出版社. 참조. 曹秉權(1993) 역시 상고중국어 시기의 목적어 전치 현상에 대해 논하고 있는데 상기 서술한 기존 연구와 크게 다를 바 없다. 李禾範(2000)은 또한 이러한 목적어 전치 현상을 무표적 전치와 유표적 전치로 나누고 고대중국어에서의 전치는 무표적 전치라고 언급하였다.

7) 상고중국어 시기의 구어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는 상기 견해는 許嘉璐(1983, 〈關於“唯……是……”式句〉, 《中國語文》第2期)와 敖鏡浩(1983, 〈略論先前時期“O/是/V”句式的演變〉, 《中國語文》第5期)의 주장에 동의하여 확장된 것이다.

고 있다. 한편 이현진(2014)에서는 《論衡》을 대상으로 疑問代詞 ‘何’에 대해 고찰한 후 ‘何’가 목적어로 쓰일 경우 술어에 전치되는지 후치되는지에 대해 논하고 있다. 그는 ‘何’가 상고중국어 시기에는 ‘云’이나 ‘于/於’의 목적어로 사용되거나 ‘謂(之)何’, ‘如(之)何’ 등의 고정 형식에서 후치되어 사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전치되어 있었으며 《論衡》에서 역시 상고중국어 시기의 용법을 잇는 관용구를 제외하고는 거의 술어 앞으로 전치되어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전치 규칙이 와해되는 모습도 일부 보여지는데 이는 OV와 VO 두 가지 어순 형식의 공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현상이라 지적하였다. 즉 기존 연구에서는 상고중국어 시기에 목적어 전치 구조가 존재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東漢 이후, 즉 중고중국어 시기에 접어들면 와해되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아직까지도 중국어의 기본어순이 SOV 유형이었을 것이라는 설, 이를 반대하는 설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 2. 고대중국어는 SVO인가 SOV인가

그렇다면 고대중국어는 SVO였을까, 아니면 SOV였을까. 학계에서의 이와 관련한 논의는 크게 아래 두 가지로 나뉘어 있다.

### 1) 상고중국어의 전신은 SOV였다는 주장

상고중국어의 전신이 SOV였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상고중국어의 SVO 어순이 SOV에서 변천되어 온 것이라고 여기며 그 근거로 상기 언급된 세 가지 목적어 도치 구문 이외에도 다른 용법이나 유형에서도 목적어 전치 현상이 종종 발견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가령 張清常(1989)는 상고중국어 시기에 목적어 전치가 다양한 구조에서 출현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는 원고중국어 시기의 기본어순이었던 SOV의 잔류라고 주장하였다. 그가 제시한 목적어 전치 구문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부정문에서의 代詞 목적어 전치, 2) 서주시기 긍정문에서의 代詞 목적어가 일부 전치되고 있는 현상, 3) 《論語》에서의 ‘非禮勿視’ 등의 목적어 전치, 4) 의문문에서의 疑問代詞의 목적어 전치, 5) 전치사구가 疑問代詞를 목적어로 취할 경우 ‘疑問代詞+전치사’ 형태로 쓰여 목적어 전치가 되는 경우가 일반적인 상황, 6) ‘自’



가 ‘자기 자신’이라는 의미일 경우 술어 앞으로 전치, 7) ‘請’이 ‘요청하다’라는 의미일 경우 ‘請’의 목적어가 술어 앞으로 전치되는 데 가령 《孟子》의 “王請無好小勇”의 ‘王請’은 사실상 OV 구조임, 8) 목적어가 명사일 경우에도 술어 앞으로 전치되는 경우가 있음, 9) ‘于/於’의 목적어가 전치사 앞으로 전치되는 경우인데 가령 《左傳》의 “諺所謂室于怒而市于色者, 楚之謂矣”에서 ‘室于’와 ‘市于’는 모두 ‘于室’과 ‘于市’의 전치라는 점, 10) ‘以’의 목적어 역시 종종 전치된다는 점, 11) 현대중국어의 어휘 중 ‘冬至’ 등의 OV 형식의 어휘가 존재한다는 점, 12) 상고중국어 시기에 목적어 전치 관련 표지가 전용 존재한다는 점, 13) ‘把’자문의 발생과 성행 모두 원고중국어 시기의 SOV 어순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 등을 그 증거로 들었다. 張清常(1989)은 이를 바탕으로 중국어의 기본어순은 SOV→SVO→SOV로 변천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馮利(1994) 역시 목적어 전치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을 논하고 있다. 1) 疑問代詞가 목적어로 쓰일 경우 先秦 시기에는 도치되는 것이 원칙이었으며 漢代 이후부터는 후치되기 시작하였다. 2) 부정문에서의 목적어가 代詞일 경우 도치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先秦 시기의 용례임에도 도치되지 않는 경우도 상당수였다. 3) 先秦 시기에 목적어가 實詞임에도 불구하고 도치되는 경우가 있었다. 4) 魏晉南北朝 이후에는 仿古 목적 이외에는 도치되지 않았는데 ‘부정부사-代詞-동사’가 ‘疑問代詞-동사’보다 먼저 소실되었다. 5) 先秦 시기의 도치 현상은 소실되었지만 ‘도치’ 현상 자체는 중국어에서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가령 현대중국어의 “他什麼都不知道”, “他連字都不會寫” 등의 구문이 그러하다. 馮利(1994)는 이러한 목적어 도치 현상이 중국어에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王力和 俞敏의 견해에 동의하여 고대중국어의 전신이 SOV형 언어였을 것이라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여 중국어는 고대로 SOV였다고 주장하는 학자들 역시 적지 않다. 다음을 보자.

## 2) 중국어가 SOV로 변화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반대 견해

중국어가 SOV로 변화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반대 견해를 견지하는 학자들은 중국어에 목적어가 전치되는 특징이 잔류하고 있다 해서 이것을 근거로 중국어는 SOV를 기본어순으로 하는 언어라는 점을 증명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梅廣



(1979)에 따르면 전 세계 언어를 구분하는 방법 중 하나는 어순에 근거해서 동사가 가운데 위치할 경우(動詞居中), 앞쪽에 위치할 경우(動詞居前), 뒤쪽에 위치할 경우(動詞居後) 3가지로 나누는 것인데 중국어는 동사가 가운데 위치하는 언어라는 것, 즉 SVO형 언어라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 되어 왔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어순 변화를 논할 때 종종 등장하는 把자문에 대해 이는 백화문 역사(白話史)에서 상당히 늦게 출현한 현상으로 동사가 虛化된 결과이며 虛化 과정 중 첫 번째 동사였던 '把'가 동사성을 상실하고 전치사 성분으로 변화한 것이라 설명하였다. 즉 把자구만으로 중국어가 SOV 언어로 변천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다.<sup>8)</sup> 屈承熹(1984)는 SOV 구문이 증가하는 원인으로 복합동사와 동사보어의 증가, 고대중국어의 '也', '乎', '兮' 등 화제(主題) 표지의 소실을 그 원인으로 지적하며 단지 이러한 일부 특징만으로 기본어순이 어떻다고 판단하는 것은 신뢰할 만한 방법이 아니라고 강조하였다. 沈培(1992) 역시 갑골문에서의 목적어 도치 구문에 대해 논하면서 기존에 학계에서 목적어 도치 구문의 예로 제시한 용례들을 하나하나 반박하고 있다. 그는 갑골문에서의 목적어가 도치된 일부 용례가 확실히 존재하지만 이는 특정 환경에서 쓰일 때임을 강조하며 이에 대해서도 피동형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sup>9)</sup> 石毓智(2002)는 또한 SVO 어순을 준수하는 언어의 경우 어순 자체가 가장 중요한 어법 표기 수단이 되며 각종 술어동사의 수식 성분은 VO 다음에 출현하는 등 형태(形態)론적인 변화는 간단한 편이지만 SOV를 기본어순으로 삼는 언어의 경우 복잡한 형태 변화를 지니게 되며 동시에 이와 관련된 여러 특징들 역시 지니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는 유형론의 각도에서 중국어와 영어의 특징을 비교하며 특정 언어의 기본어순이 어법 표기 계통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그 중 고대중국어와 영어를 피동문, 비교문, 처소사, 시간사, 부사, 결과보어 등의 각도에서 비교 대조하여 두 언어 모두 동일한 어순을 지키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중국어의 기본어순은 고대부터 현대까지 SVO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8) 본고는 앞의 각주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필자의 2008년 레포트를 바탕으로 보완 및 확장되어 작성되었다. 기존 레포트에 제시되었던 학자들의 견해를 다시 한 번 확인하기 위해 논문을 찾는 과정에서 당시 참고했던 梅廣(1979)의 논문을 구할 길이 없어 박정구(2006)에 언급된 梅廣 교수의 견해를 일부 재인용하였음을 밝힙니다.

9) 沈培(1992)의 논문은 김경일(2008)의 번역본 참조.

즉, 중국어의 기본어순이 SOV에서 SVO로 변천한다는 주장을 하는 학자들은 목적어의 도치 여부를 중요한 특징으로 지적하고 여러 형태의 목적어 전치 구문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이를 반대하는 학자들은 목적어 도치만으로 그 기준을 삼는 것은 문제점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는 등 기본어순 관련한 연구는 아직까지 명확한 결론이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SVO가 중국어의 기본어순이라 주장하고 있는 학자들의 경우 단편적인 현상만을 나열하거나 일부 용법에 대해서만 논하는 등 상대적으로 증거 제시가 부족한 편이었다.

#### IV. 수식어 어순에 대한 토론

통상 SOV형 언어는 ‘수식어-중심어’ 구조를, SVO형 언어는 ‘중심어-수식어’ 구조를 지닌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중국어는 SVO형 언어이면서 ‘수식어-중심어’ 구조를 지니고 있는데 이 때문에 중국어 기본어순 유형에 대한 토론이 끊이지 않고 있다.

##### 1. 수식어 후치 현상

일반적으로 중국어의 유형적인 특징으로 ‘수식어-중심어’(혹은 ‘형용사-명사’) 어순을 들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몇 십년간 일부 학자들이 《詩經》이나 남방 지역의 중국어 방언에서 ‘중심어-수식어’ 구조가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고 이러한 구조를 ‘수식어-중심어’ 구조의 원천이라 주장하였다. 가령 岑麒祥(1953)의 경우 광주 지역 방언에 ‘명사-형용사’ 구조가 존재하는데 이는 광동지역 원시토착어의 언어 특징으로 현대의 壯語에 보존되어 있는 현상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客人’을 ‘人客’이라 하고 ‘公雞’를 ‘雞公’이라 하는 이러한 기본어순에 위배되는 어순은 壯語에 보존되어 온 특징이라고 주장하였다. 橋本萬太郎(1976) 역시 아시아의 언어 확산을 논하며 중국어의 일부 구조에서 기본어순에 위배되는 현상이 발견되는 것은 알타이어나 남아시아 언어가 확산된 결과라고 주장하였다. 즉 수식어구가 후치되는 ‘명사-수식어’ 구조의 복합사는 ‘화석성’ 구조로 초기의 언어 흔적을 보존하고 있는 결과라

하였다. 그는 이러한 특징은 남북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기도 한데 가령 북방에서는 ‘公牛’라, 남방에서 ‘牛公’이라 말하는 등 남북의 방언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는 지리적인 공시적 요소와 통시적인 변천을 결부하여 藤堂明保(1959)의 견해를 확장시킨 후 상고중국어 시기의 ‘명사-수식어’ 구조가 ‘수식어-명사’ 구조로 변천되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張清常(1989)에서는 상고중국어 시기의 관형어 후치 현상에 대해 논하면서 이는 티베트어(藏語)와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티베트어는 SOV가 기본어순이고 수식어가 후치되고 있는데 이는 상고중국어 시기의 현상과 비슷하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그는 《詩經》에 잔류하고 있는 관형어 후치 현상을 예로 들어 상고중국어의 전신인 원고중국어 시기는 SOV가 기본어순이었으며 그렇기에 이러한 후치 현상이 상고중국어 시기에 남아 있는 것이라 주장하였다.<sup>10)</sup> 종합하면 ‘중심어-수식어’가 ‘수식어-중심어’로 변천되어 왔다는 이러한 주장은 모두 현대의 방언이나 《詩經》 연구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

## 2. 수식어 전치 현상

이에 대해 일부 학자들은 반대의견을 표하며 상고중국어는 여전히 ‘수식어-중심어’ 구조가 기본어순인 언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가령 丁邦新(1994)의 경우 상고중국어에는 ‘중심어-수식어’ 구조가 존재했던 흔적이 결코 없다고 주장하며 지역적인 차이나 통시적인 변천 모두 살펴봐도 그런 현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丁邦新(2000)은 또한 湘語, 客家語, 粵語, 閩語 등 총 4개 지역의 방언 중 동물의 성별을 나타내는 어휘를 집중 고찰하여 중국어 방언에는 ‘중심어-수식어’라는 어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자신의 견해를 증명하였다. 그는 ‘牛公, 牛母’ 등의 구조는 언어접촉과 관련된 결과가 아니며 이는 여전히 ‘수식어-중심어’ 구조이고 중국어의 기본어순 규칙과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sup>11)</sup> 邢公畹(1983) 역시 《詩經》에서의 ‘中林’, ‘中河’, ‘中沚’ 등이 毛傳에서 ‘中林/林中’, ‘中河/河中’, ‘中沚/

10) 그는 이 외에도 상고중국어 시기의 量詞의 후치 현상, 현대중국어에서의 일부 수식어 후치 현상에 대해서도 논하고 있다.

11) 丁邦新(2000) 《論漢語方言中“中心語—修飾語”的反常詞序問題》, 《方言》第2期.

‘中’의 용법은 현대중국어의 관점에서 보면 도치 현상으로 볼 수 있겠지만 ‘中林’, ‘中河’, ‘中沚’ 등의 ‘中’은 사실상 ‘중간’이라는 의미로 그 다음 實詞를 수식하는 수식어라고 주장하였다. 喻遂生(2000)은 또한 甲骨文에 출현하는 ‘中日’이라는 어휘는 정오를 의미하는데 이는 후대 문헌에서 ‘日中’이라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즉 甲骨文에서는 “中日至昃不雨(屯42)”라 쓰이지만 《尚書》에서는 “自朝至於日中、昃,不遑暇食(尚書·無逸)” 등으로 쓰이고 있다는 것이다. 喻遂生은 그러나 ‘中日’은 ‘湄日’, ‘食日’, ‘昃日’과 동일한 유형으로 ‘日中’의 도치가 아니라 수식어가 앞에 놓인 수식구조로서 ‘中日’의 ‘日’은 시간이나 때를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 두 가지 구조는 漢藏語 계열 일부 언어의 관형어 후치와는 필연적인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였다.<sup>12)</sup> 한국 학자인 장호득(2004) 역시 Greenberg가 제시한 언어의 유형적 특징이 중국어에는 부합되지 않는다고 언급하며 중국어는 SVO언어도 SOV언어도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중국어는 VO의 경향성을 띠고 있을 뿐이며 수식구조에서는 ‘수식어-중심어’ 경향성을 지니고 있을 뿐이라 주장하였다. 그는 현대중국어뿐만 아니라 고대중국어 조사인 ‘之’, ‘所’, ‘者’에 대한 고찰을 통해 중국어는 기능표지(functional marker)를 지닌 언어이며 ‘수식어-피수식어’가 기본어순인 구조라 하였다. 즉 ‘之’는 ‘수식어-之-피수식어’ 구조에 쓰여 전치도 후치도 아닌 수식어구의 중간에 오는 독립적인 표지이고, ‘者’는 ‘수식어-者’의 구조로 쓰여 현대중국어의 ‘的’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으며 ‘所’는 ‘所-수식어(용언)’ 구조로 쓰여 체언성 수식어와의 차별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郭攀(2001)에서는 ‘數(量)名’ 구조에 대한 토론에서 통계 분석을 통해 중국어의 경우 상고중국어 시기부터 줄곧 ‘數(量)名’ 구조가 우세해왔다고 주장하였다.

즉 기존 연구를 종합해보면 중국어는 ‘수식어-중심어’ 구조가 기본어순인 언어라는 견해가 수량적으로 좀 더 많은 편이었다. 하지만 기존 연구에서는 《詩經》이나 방언에 대해서는 같은 구조에 대해 각기 다른 풀이를 하고 있는 등 설득력 있는 해석이 부족한 편이었다.

12) 喻遂生(2000) 《甲骨文語序問題筭記二則》, 《古漢語研究》第3期.

## V. 부사어/보어 어순에 대한 토론

통상 SOV형 언어는 ‘부사어-술어’ 구조를, SVO형 언어는 ‘술어-부사어’ 구조를 지닌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중국어는 SVO형 언어이면서 ‘부사어-술어’ 구조이기에 이에 대한 논의 역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 1. 전치사구(介賓結構) 어순

전치사구가 놓이는 위치에 대해 고대중국어 어법서에서는 보통 술어의 앞에 놓일 경우 부사어로, 뒤에 놓일 경우 보어로 쓰인다고 서술하고 있다.<sup>13)</sup> 전치사구 어순이 술어에 선행하는지 후행하는지에 대해 1960년대 이전에는 馬建忠(1898)과 楊樹達(1955), 劉景農(1958) 모두 언급한 바 있지만 기존에는 보통 형식적인 면에 치중하여 산발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현상 나열에만 그치는 등 체계적이고 심도있는 논의는 진행되지 못했다.<sup>14)</sup>

#### 1) 전치사구 후치, 그리고 통시적 변천

Li & Thompson(1976)은 12세기 이전에는 중국어의 전치사구는 모두 동사 뒤에 위치한다고 주장하였다.<sup>15)</sup> 사실상 전치사구 후치를 논한 연구는 비교적 이른 시기의 자료가 대상이 되었는데, 보통 ‘于’를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가령 史舒薇(1996)는 《詩經》의 모든 전치사에 대해 양적인 고찰을 진행한 후 문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가장 복잡한 관계를 표현하는 ‘于’를 대상으로 하여 통계적인 분석을 시도하여 《詩經》에서 전치사 ‘于’로 구성된 전치사구조의 위치는 동사 뒤에 놓인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동사 앞에 위치한 전치사구조에 관해서는 운율이나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한 현상이라고 지적하였다. 그 후 張頴(2002)은 박사논문에서 통시적인 각도에서 전치사구 어순의 통시적 변천 과정을 통계적인 방법으로 체계적으로

13) 史舒薇(1996) 《〈詩經〉介賓結構位置的考察》, 《華東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第3期.

14) 선행 연구 관련한 소개는 양세욱(2005:116-117) 참조.

15) 潘秋平·江凌(2013) 재인용.

논한 바, 그녀는 논문에서 시기를 先秦西漢, 東漢, 魏晉南北朝, 唐五代, 宋, 元明으로 나누어 전치사구의 용법과 사용 현황, 그리고 전치사구의 어순에 대해서 논하였다. 그 결과 전치사구가 상고중국어 시기인 先秦西漢 시기에는 후치되는 구조였다가 그 이후로 점진적으로 전치 구조로 변하게 된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趙惠君(2000) 역시 《左傳》과 《史記·晉世家》에 대해 공시적이고 통시적인 고찰을 진행하여 漢代에 전치사 종류가 다양해짐과 동시에 기능 역시 다기능에서 단일 기능으로 전환되었으며 의미기능이 더 명확해 졌다고 하였다. 또한 시간이나 처소를 나타내는 전치사구조는 보어 위치에서 부사어 위치로 전환되었으며 부사어가 더욱 다양해 졌다고 지적하였다. 즉 기존 연구에서는 상고중국어 시기의 전치사구는 후치되는 구조가 더 보편적이다가 중고중국어 시기에 접어들면서 전치되기 시작한다는 연구 결과가 지배적이었다.

## 2) 전치사구 전치

그러나 상고중국어 시기의 전치사구가 전치와 후치 모두 존재하고 있었다는 연구 역시 존재하였는데 가령 何樂士(1992)와 孫朝奮(1996)는 상고중국어 시기의 전치사구는 동사의 앞 혹은 뒤에 모두 출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며<sup>16)</sup>, 潘秋平·江凌(2013)에서는 ‘于/於’는 동사 뒤에, ‘與’ 등의 전치사는 동사 앞에 놓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일부 학자는 어떤 전치사이냐에 따라 전치사구의 위치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魯國堯(1980)는 《孟子》에서의 ‘以전치사구-동사-목적어’, ‘동사-목적어-以전치사구’, ‘以전치사구-동사’, ‘동사-以전치사구’에 대해 조사하여 《孟子》에서 전치사 ‘以’가 앞쪽에 놓이는 구조의 출현 빈도가 훨씬 높으며 특유의 기능을 많이 지니고 있고 ‘以’가 뒤에 놓이는 구조는 출현 빈도도 낮을 뿐더러 다른 어휘와 결합할 때에도 제약을 많이 받는다고 하였다. 그는 전치사구가 술어에 선행하는 경우에는 원인을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또한 以전치사구가 보어보다 부사어로 쓰이는 빈도가 훨씬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구조는 후에 명사의 도구부사어적 용법을 대체하게 되고 결국에는 현대중국어의 ‘用……’, ‘拿……’ 용법의 전신이 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양세욱(2005)에서

16) 潘秋平·江凌(2013) 참조.

는 전치사구가 선행하는 구조를 무표적 어순, 후행하는 구조를 유표적 어순으로 보고 무표적 어순의 경우 고대중국어의 '수식어-피수식어' 구조와도 일치하는 어순이라고 보았다. 또한 이러한 무표적 어순이 후대의 '전치사구-술어' 어순의 전신이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근대중국어 시기의 전치사구 위치에 대해 논한 논문도 있었는데 신용권(2005)에서는 《老乞大》에서 '將/把'를 포함한 일부 전치사가 쓰인 전치사구가 기본적으로 술어 성분 앞에 놓이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는 연동문의 'V1OV2(0)' 구조에서 첫 번째 동사가 전치사로 발전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종합하면 상고중국어 시기 전치사구는 후치 구조가 기본어순인데 중고중국어 시기 이후 전치 구조로 변천되고 있다는 견해, 그리고 전치와 후치가 상고중국어 시기부터 줄곧 공존해왔다는 견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전치사의 분류 때문에 생겨나는 차이이다. 즉 전자와 관련된 연구는 상고중국어 시기 전치사 중 '于/於'를 그 주요 고찰대상으로 삼았고 후자와 관련된 연구는 '與/以'까지 전치사로 보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달라진 것이다. 즉 향후 전치사구 어순 관련 제대로 된 결과를 도출해 내려면 상고중국어 시기의 전치사 범주에 대한 정의가 선행되어야만 할 것이다.

### 3) 후치사 구조

이 밖에도 후치사 구조를 논한 연구도 있는데 가령 麥梅翹(1983)는 《左傳》에서 '以' 앞으로 전치되는 목적어에 대해 고찰한 후 목적어를 강조할 경우, 목적어가 너무 길 경우, 疑問代詞 '何'나 '何'가 포함된 명사구가 목적어로 쓰일 경우 목적어가 '以' 앞으로 전치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목적어 전치의 경우에도 몇 가지 특성이 있었는데 즉 부정문이나 가정문에 쓰이지 않았으며 부사의 수식을 받지 않는 등의 특징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위사에 관한 연구도 있었는데 李崇興(1992)의 연구가 그러하다. 그는 처소명사, 처소지시대사, 처소의문사의 변천 과정을 묘사하였다. 그 중 처소명사의 변천을 논하며 상고중국어의 명사(지명, 국가명, 인명, 동식물명, 신체기관, 물질재료, 기물 명사 등)가 처소를 나타낼 때 방위사를 덧붙이지 않는 것이 기본 조건이기는 하지만 다음과 같은 조건도 지니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1) 처소목적어를 수반할 수 있는 동사 뒤에 쓰인다. (2) 처소



관계를 나타내는 전치사 뒤에 쓰이는데 주로 ‘於’자 다음에 쓰인다. 西漢 시기에 대다수의 처소보어가 ‘於’자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는 처소명사가 방위사를 수반하게 된 이후 ‘於’에 더 이상 의존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 방위사는 원래 실제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으나 점점 虛化되어 결국에는 어법적인 작용만을 하게 된다. 魏晉南北朝 시기에 처소명사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는데 ‘上’과 같은 일부 방위사의 경우 의미가 극단적으로 虛化되어 광범위하게 사용되기에 이르렀다. 이 때문에 그 이전에 방위사를 수반할 수 없었던 명사들, 가령 신체기관을 나타내는 명사, 일부 기물명사, 지형을 나타내는 명사 등이 방위사를 수반할 수 있게 되었다. 형식적인 면에서 살펴보았을 때에도 이 시기에는 현저한 변화가 두 가지 발생했다. 하나는 처소사와 명사목적어가 동사의 양쪽에 놓이는 구문이 발생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처소사가 동사 앞에 놓일 경우에는 동작이 발생한 처소를 나타내고 동사 뒤에 놓일 경우에는 동작의 결과를 나타낸다는 것이며 이러한 사실은 이미 보편적인 현상이 되어 있었다. 六朝 시기 이후에는 처소명사의 표지화(標記化)가 극으로 치닫게 되었다. 한편 근대중국어 시기의 후치사 연구 성과도 있었는데 신용권(2005)에서는 후치사 구조에 대해 논하며 《老乞大》에서 ‘行/上(上頭), 呵/時, 根前/根底, 裏’ 등의 후치사의 경우 전치사구와는 상대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언어접촉과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2. 동보구조의 형성과 변천

동보구조 관련 연구는 중고중국어 시기 이후의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李訥·石毓智(1998)는 고대중국어의 경우 중심동사와 목적어 뒤에 또 다른 구법위치(句法位置)가 존재하는데 이 구법위치에 또 다른 술어성 성분인 형용사, 자동사, 전치사구, 시간사, 수량사, ‘如’ 수식어구 등이 놓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통시적 각도에서 살펴보았을 때 이러한 구법위치는 점점 소멸되어 그 중의 술어성 성분에 중요한 어순 변화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중국어 구법 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고 하였다. 李訥·石毓智(1998)는 전치사구, ‘如’ 수식어구, 시간사, 수량구조 등 4가지 술어성 성분이 ‘중심동사+목적어’ 구조 뒤에서 앞으로 전치되는 현상에 대해 논하며 이러한 변화가 宋元 시기에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중국어 구문의 구조를 두 개의 술어중심 구조에서 한 개의 술어중심 구조로 바꾸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들은 술어성 성분에 변화를 초래하는 동인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1) 동보구조의 발전으로 대부분의 'V+O+X' 구조가 'V+X+O'로 변했다. 이와 동시에 보어와 다른 술어성 성분 간에 배척 성향이 존재하기에 동보구조의 목적어 뒤에는 또 다른 술어의 출현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 결과 중심동사와 목적어 뒤에 놓인 술어의 구법지위가 상실되게 되었다. (2) 중국어 상표지(體標記) 체계의 수립은 어법 수단으로 구문의 한정과 비한정동사를 구별할 수 있게 하였다. 이 때문에 하나의 한정동사를 중심으로 삼는 문장 구성 원칙이 생겨났으며 두 개의 술어 중심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게 되었다. 그 결과 중심동사와 목적어 뒤에 술어의 구법 지위가 쇠락하게 되었다. 또한 呂叔湘(1944)은 V를 동사로, O를 목적어로, C를 結動詞로 보고<sup>17)</sup> 동사 뒤의 '得'이나 '不' 관련된 어순을 'V得, V不得, 不V得', 'VOC, VCO, VOCC, VCOC', 'VO得, V得O, VO不得, V不得O, 不V得O', 'VC得, V得C, VC不得, V不C, 不V得C', 'VO得C, V得OC, V得CO, VO不C, V不得OC, V不CO, VCO不得' 등으로 구분하였다. 그는 목적어, 동사, '得' 중 동사와의 관계가 가장 가까운 것은 '得>結動詞>목적어'라 주장하였다. 한편 李思明(1992)은 근대중국어 시기의 백화문 대표저작인 《祖堂集》, 《五燈會元》, 《朱子語類》, 《水滸全傳》, 《金瓶梅》, 《紅樓夢》을 대상으로 가능보어에서의 목적어 위치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그 결과 (1)晚唐에서 清代 초기까지 가능보어에서의 목적어 위치는 상당한 다양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었는데, (2) 이러한 변화 중 대다수는 긍정문의 경우 O와 C의 어순에서, 부정문의 경우 O와 C의 어순뿐만 아니라 O와 不(得)의 순서에서 발견되고 있었으며, (3) 전체 변천 과정을 살펴보면 긍정문과 부정문 형식이 비대칭(不對稱)에서 대칭(對稱)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4) 또한 각종 성분의 V 뒤에서의 어순 변화는 V와 다른 성분들 간의 관계의 원근과도 관련이 있었는데 그 순서는 '得/不得>C/C1>O>C2'였다. (5) 시기적으로는 각 문헌에서 사용되고 있는 형식을 통계적으로 살펴본 결과, 《朱子語類》를 전후로 하여 각종 형식이 양적으로 다양하게 출현하고 있었고 《水滸全傳》와 《金瓶梅》가 속한 시기는 각종 형식이 양에서 질적으로 변화하는 시기였으며 《紅樓夢》에서는 현대중국어로의 전환이 이미 완성되고 있다 주장하였다. 이 밖에도 蔣紹愚

17) 呂叔湘(1944)은 동태를 제한하거나 목적어를 설명하는 詞를 結動詞라 칭하고 있다.

(2003)는 魏晉南北朝 시기의 'VOC' 구조의 보어 위치에 결과보어(結果補語), 동태보어(動相補語), 부정형 가능보어(否定的能性補語)가 올 수 있는데 그 중 보어가 통시적 변천 과정을 거쳐 목적어 앞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밝히고 그 원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1) 결과보어가 'VOC'의 순서인 것은 어떤 동작이 우선 어떠한 대상에 영향을 미친 다음 그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므로 도상성 원칙에 부합하는 어순이다. 그러나 보어가 앞으로 이동한 'VCO'의 경우 이는 보어가 동사성을 상실하고 虛化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즉 중국어에서 어떤 품사가 實詞일 경우 시간순서원칙을 지키게 되지만 虛化될 경우 인지언어학의 '형태(完形, gestalt)원칙'에 의거하여 'VC'라는 형태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2) 동태보어의 경우 우선 'VO+已/竟/訖/畢' 구조가 'VO+了' 구조로 바뀐 후 '了'가 다시 앞으로 이동해 'V了O' 구조가 되었는데 이 또한 '了'의 虛化와 'V了'의 형태원칙에 동시에 부합하는 결과라 지적하였다. (3) 부정형 가능보어의 경우 'VO不得'에서 'V不得O'로 변천하였는데 이 역시 '不得'의 虛化로 동사에 근접하려는 속성이 있기 때문이라 풀이하였다. 부정형 가능보어의 경우 이러한 원인 외에도 'V得O' 구조의 영향을 받아 類推된 결과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 VI. 나오며

본고에서는 고대중국어 시기로 그 범위를 제한하여 중국어 어순 관련 기존 연구 성과를 개괄하였다. 통상 SOV형 언어는 '수식어-중심어'와 '부사어-술어' 구조를, SVO형 언어는 '중심어-수식어'와 '술어-부사어' 구조를 지닌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중국어는 SVO형 언어이면서 '수식어-중심어'와 '부사어-술어' 구조를 지니고 있는데 이 때문에 중국어 기본어순 유형에 대한 토론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에 어순 관련 연구 성과를 도상성 원칙과 자의성 원칙, '어순' 관련 명칭과 함의에 대한 연구 성과, 목적어 전치 현상과 고대중국어의 기본어순, 수식어 전치/후치 현상에 대한 기존 견해, 전치사구 어순과 동보구조의 형성과 발전 등으로 나누어 고대중국어에서 어순 관련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종합하였다.

이론 관련해서는 고대중국어는 기본적으로 도상성 원칙을 따르고 있지만 상고중국어 시기에는 일부 구문에 한해 자의성 원칙을 따르기도 한다(가령 ‘于’전치사구)는 연구 성과가 있었다. 명칭 관련해서 역시 기존의 ‘詞序’와 ‘語序’라는 명칭의 사용이 혼재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기존에는 고대중국어의 기본어순 유형이 무엇인지에 대해 토론을 전개할 때 보통 목적어가 도치되는지 여부에 초점을 두어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와 관련한 논의는 보통 부정문에서의 목적어 도치, 의문문에서의 代詞 목적어 도치, ‘之’나 ‘是’를 사용하여 목적어를 도치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는데 이 때문에 상고중국어 이전 시기인 원고중국어는 SOV형 어순이라는 견해도 제기되었다. 본고에서는 이와 더불어 이러한 전치 현상이 東漢 이후 와해되고 있다는 기존 학자의 견해 역시 제시하였다. 한편 고대중국어가 SVO인지 SOV인지에 대한 토론 성과를 소개하며 상고중국어의 전신인 원고중국어가 SOV라는 주장, 중국어가 SOV로 변화되고 있다는 견해에 대한 반대 주장, 중국어는 SOV가 기본어순이라는 주장 등을 소개하였다.

수식어구 어순에 대한 토론에서는 고대중국어의 ‘수식어-중심어’ 구조라는 견해, 그리고 이에 반박하는 견해를 소개하여 같은 현상에 대한 각기 다른 입장을 제시하였다. 부사어 어순 관련해서는 상고중국어 시기 전치사구 어순은 후치가 기본 조건이었다가 중고중국어 시기에 이르러 점진적으로 전치되고 있다는 연구 성과를 개괄하였으며 이외는 별도로 같은 시기라 할지라도 전치사별로 전치와 후치가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데 가령 상고중국어 시기에 ‘于/於’ 전치사구는 후치되지만 ‘與’ 전치사구나 ‘以’ 전치사구는 전치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견해도 소개하였다. 또한 ‘以’나 ‘行/上(上頭), 呵/時, 根前/根底, 裏’ 등이 시기별로 명사의 후치사로 쓰이고 있다는 연구 역시 소개하였다. 보어 어순 관련해서는 동보구조 연구 성과를 소개하며 동보구조가 연동문의 두 번째 동사 위치에 놓이다가 의미가 약화되며 목적어 앞으로 전치되는 현상에 대한 연구 성과를 개괄하였다.

고대중국어 어순 관련 연구는 현대중국어나 타 언어의 어순 연구에 비해 아직까지 일부 문헌에 국한되어 있는 등 단편적이고 체계성이 결여되어 있는 편이다. 본고에서는 고대중국어 어순 관련 연구 현황을 최대한 수집하여 요약 정리하려 노력하였으나 필자의 자료수집 능력의 한계로 인해 대만 연구 성과나 외국 연구 성과,

혹은 현대중국어 어순 관련 연구 성과에 일부 언급되어 있는 고대중국어 관련 연구 성과를 상당수 신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기존 연구 현황 소개에 치중되어 있는 등 향후 과제에 대한 제시가 부족했다. 향후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희망한다.

### 【參考文獻】 18)

(1)

- 沈培(1992) 《殷墟甲骨卜辭語序研究》, (臺灣)文津出版社.  
 屈承熹(1984) 〈漢語的詞序及其變遷〉, 《語言研究》第1期.  
 戴浩一(1988) 〈時間順序和漢語的語序〉, 《國外語言學》第1期.  
 戴浩一(1994) 〈以認知爲基礎的漢語功能語法芻議〉, 《功能主義與漢語語法》, 北京語言學院出版社.  
 張楨(2002) 《漢語介詞短語詞序的歷史演變》, 北京語言文化大學出版社.  
 安玉霞(2006) 〈漢語語序問題研究綜述〉, 《漢語學習》第6期.  
 嚴辰松(1997) 〈語言臨摹性概說〉, 《國外語言學》第3期.  
 謝信一(1991) 〈漢語中的時間和意象〉, 《國外語言學》第4期.  
 孫良明(1989) 〈從《詩經》毛傳、鄭箋談賓語前置句式的變化〉, 《中國語文》第3期.  
 石毓智(2002) 〈論語言的基本語序對其語法系統的影響兼論現代漢語句子組織信息的原則形成的歷史動因〉, 《外國語》第1期.  
 丁邦新(2000) 〈論漢語方言中“中心語—修飾語”的反常詞序問題〉, 《方言》第2期.  
 麥梅翹(1983) 〈《左傳》中介詞“以”的前置賓語〉, 《中國語文》第5期.  
 李崇興(1992) 〈處所詞發展歷史的初步考察〉, 《近代漢語研究》, 商務印書館.  
 魯國堯(1980) 〈《孟子》“以羊易之”、“易之以羊”兩種結構類型的對比研究〉, 載《先秦漢語研究》, 山東教育出版社, 1992年.  
 呂叔湘(1944) 〈與動詞後“得”與“不”有關之詞序問題〉, 載《漢語語法論文集》, 商務印書館, 1984年.  
 李思明(1992) 〈晚唐以來可能性動補結構中賓語位置的發展變化〉, 《古漢語研究》第4期.

18) 참고문헌 (1) 목록은 楊榮祥 교수가 제공하였고, 참고문헌 (2)는 필자가 별도로 찾은 논문임을 밝힙니다.

- 喻遂生(2000) 〈甲骨文語序問題筭記二則〉, 《古漢語研究》第3期.
- 梅廣(1979) 〈現代漢語眞的是一種SOV語言嗎?〉, 載《台靜農先生八十壽慶論文集》, (台)聯經出版事業公司.
- 李訥、石毓智(1998) 〈句子中心動詞及其賓語之後謂詞性成分的變遷與量詞語法化的動因〉, 《語言研究》第1期.

## (2)

- 楊伯峻、何樂士(2001) 《古漢語語法及其發展》, 語文出版社.
- 謝信一 著, 葉蜚聲 譯(1992) 〈漢語中的時間和意象(中)〉, 《國外語言學》第1期.
- 謝信一 著, 葉蜚聲 譯(1992) 〈漢語中的時間和意象(下)〉, 《國外語言學》第3期.
- 范曉(2001) 〈關於漢語的語序問題(一)〉, 《漢語學習》第5期.
- 范曉(2001) 〈關於漢語的語序問題(二)〉, 《漢語學習》第6期.
- 劉青(2007) 〈甲骨卜辭語序的時間順序原則及其制約〉, 《漢語史研究集刊》第十集, 巴蜀書社.
- 蔣紹愚(1999) 〈抽象原則和臨摹原則在漢語語法史中的體現〉, 《古漢語研究》第4期.
- 張田田(2008) 〈關於“在”字結構語序問題的分析〉, 《巢湖學院學報》第2期.
- 史舒薇(1996) 〈《詩經》介賓結構位置的考察〉, 《華東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第3期.
- 趙惠君(2000) 〈《左傳》與《史記·晉世家》同義介賓結構比較研究〉《株洲工學院學報》第1期.
- 袁毓林(1994) 〈關於認知語言學的理论思考〉, 《中國社會科學》第1期.
- 李禾範(2000) 〈賓語前置芻議〉, 《南京師大學報》第5期.
- 王輝(2007) 《制約古漢語語序重要因素的研究》, 南昌大學 碩士學位論文.
- 潘秋平(2013) 〈上古漢語介詞詞組的語序問題〉, 《歷史語言學研究》第六輯.
- 郭攀(2001) 〈古漢語“數(量)·名”二語序形式二論〉, 《古漢語研究》第三期.
- 曹秉權(1993) 〈古漢語語序簡說〉, 《唐都學刊》第九卷第二期.
- 張清常(1989) 〈上古漢語的SOV語序及定語后置〉, 《語言教學與研究》第一期.
- 蔣紹愚(2003) 〈魏晉南北朝的“述賓補”式述補結構〉, 《國學研究》第十二卷.
- 潘秋平·江凌(2013) 〈上古漢語介詞詞組的語序問題〉, 《歷史語言學研究》第六輯.
- 馮利(1994) 〈論上古漢語的重音轉移與賓語後置〉, 《語言研究》第一期.
- 魏培泉(2004) 《漢魏六朝稱代詞研究》, 中央研究院 語言學研究所.
- 박정구(2006) 〈중국어 어순 유형론 연구의 성과와 전망〉, 《中國學報》第54輯.
- 조경환(2008) 〈把字句와 도상성〉, 《中國語文論叢》第37輯.
- 장호득(2004) 〈중국어 어순에 대한 고찰〉, 《東洋學》第35輯.
- 양세욱(2005) 〈고전중국어의 以 전치사구 語順과 정보구조〉, 《中國語文學》第45輯.

신용권(2005) 《《老乞大》에 나타난 어순변화에 대하여 - 문법화(Grammaticalization)를 중심으로 -》, 《中國語文學》 第45輯.

이현진(2014) 《《論衡》疑問代詞 '何' 연구 - 문법특징과疑問代詞 목적어의 위치 문제를 중심으로》, 《中國語文論譯叢刊》 第36輯.

김경일(2008) 《《殷墟甲骨卜辭語序研究》의 번역II》, 《中國語文論譯叢刊》 第22輯.

### 【中文提要】

漢語語法,尤其是對古漢語語法來說,語序是重要的語法手段。在類型學視角下,以S、V、O爲參項引發了漢語是SVO型語言還是SOV型的爭論,縱觀20世紀30年代初至今,語序研究經歷了萌芽、發展繁榮、深化等階段,取得了較爲豐碩的成果。但是已有研究成果側重在現代漢語的語序研究,相對來講,古代漢語的語序研究可以說還處於萌芽階段。本文從類型學的角度,對古漢語語序問題的研究進行簡要的綜述。本文介紹了像似性原則和時間順序原則以及抽象性原則在古漢語中的體現,同時介紹了圍繞“語序”和“詞序”概念展開的一些討論。其次還從賓語前置的角度闡述了以往對古漢語基本語序的一些看法。然後對定中結構中的定語位置、介詞組位置、動結式中的補語位置等進行了簡要的描述。

### 【主題語】

고대중국어, 어순, 어휘순서, SOV, SVO

Ancient Chinese, word order, sentence elements order, SOV, SVO

古漢語, 語序, 詞序, SOV, SVO

투고일: 2015. 4. 14 / 심사일: 2015. 4. 20~5. 5 / 게재확정일: 2015. 5. 10